



전북여성가족재단, 지역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18일 지역 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주도적인 참여를 하는 풀뿌리 활동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활동가로서의 동기를 부여하고 정체성을 향상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활동가는 아니지만 지역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변화를 지지하고자 하는 도민의 참여를 독려해 지역 사회 내에서 단체 간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개인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재단은 워크숍 주제를 '이음·연결·관계·변화'로 설정해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환경·인권·성평등·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와 도민 5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나의 강점을 인식시키는 퍼스널브랜딩 전략 △나를 일으키는 힘, '회복탄력성'으로 구성, 셀프리더십 분야의 전문가인 박지아 대표(한국감성성통연연구소)가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농협 정읍시지부, 도농상생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18일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지회장 이호춘)를 찾아 200만원의 상당의 정읍 쌀을 기부하는 '도농 상생 사랑의 쌀 나눔' 기부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범농협 쌀 소비촉진운동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가 후원하고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농업인 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재연 지부장은 "농촌지역에 연말연시 소외감을 느낄 이웃이 많아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사회단체 백구미래연합, 김장김치 50박스 기탁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사회단체 백구미래연합(대표 장성철)이 지난 17일, 겨울철을 맞아 '김장김치 5kg 50박스(1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배추 가격 상승과 고추가루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도, 회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를 지역사회에 전달하며 훈훈함을 전달했다.

백구미래연합은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로, 매년 송년 나누기, 삼계탕으로 복날을 하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성철 대표는 "올해 김장김치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며, "백구미래연합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최신규 백구면장은 "항상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백구미래연합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든든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기탁해주신 김치는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소중히 전달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기부된 김장김치는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김장을 하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두엔지니어링,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남원시는 지난 17일, 관내 기업인 (유)백두엔지니어링(대표 박진영)이 200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백두엔지니어링은 매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기부를 실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박진영 대표는 "백두엔지니어링은 지역사회의 사랑과 신뢰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부해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유튜브 통해 매력 만점 정읍 알리기 '집중'

관광 유튜브 공모 시상식 개최... 정대성씨 '정읍의 자연과 역사 이야기' 대상 수상

정읍시가 파급력 있는 SNS 매체인 유튜브를 활용한 정읍의 숨은 매력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독특함과 재미, 뛰어난 영상미로 정읍의 알려지지 않은 명소 등의 관광명소와 흥미로운 체험 등을 담은 유튜브로 꾸준히 알려 정읍을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만들어 간다는 전략이다.

시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국민 대상의 관광 유튜브 공모전을 통해 대상 정대성(서울)씨의 '정읍의 자연과 역사 이야기'(이하 정읍 이야기)' 등 모두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트릭코(안산)의 '인생 여행지 : 정읍에서의 특별한 하루', 우수상은 추억따라 이백리팀(서울)의 '상상만으로는 끝내기에 아쉬운 정읍, 정읍으로의 여행을 출발합니다'가 차지했다.

또 장려상은 삼채팀(서울)의 '다시 만난 그곳, 정읍'과 김준태(전주)씨의 '천년의 시간, 정읍을 펼쳐다'가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이학수 시장은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 맛집 등을 담은 창작 영상물을 통해 정읍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공모전을 갖고 있다"며 "정읍의 다양한 관광명소와 자원들이 유튜브를 통해 널리 알려질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관련 대학 교수와 기자와 PD, 관광 전문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1천만



원의 상금도 주어진다.

수상 작품은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see'에 게재될 예정이며, 정읍시의 각종 홍보 영상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인 정씨는 "정읍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을 극적인 분위기로 담았다"며 "자연과 공간이 아름다운 장소와 역사에 관련된 장소를 소개하면서 정읍을 꼭 방문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최우수상 트릭코의 대표 박민식씨는 "최고 여행지인 아름다운 정읍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절친 5명의 트릭 샷을 담은 영상으로 독특한 재미와 함께 정읍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수상작도 정읍의 매력을 저마다의 감성과 시각, 감각적인 편집과 흥미 있는 음악으로 선보이고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전주대 윤선영 팀장, 일자리 활성화 부문 유관기관 유공자 선정

전북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표창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윤선영 팀장이 2024년 일자리 활성화 부문 유관기관 유공자로 선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표창은 주식회사 타바바 등 우수 중소기업과 함께 유관기관 및 공무원 등 총 18명에게 수여됐다.

이에 따르면 윤 팀장은 2016년부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팀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체계 구축 등 지역 청년고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도내 우수기업과의 JJ기업협의회를 구축해 실질적인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도내 우수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직무박람회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윤선영 팀장은 "지속적으로 도내 우수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가면서 도내 우수 인재의 정주 여건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허브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대는 2015년 호남권 최초로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창조일자리센터(現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선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대학 재학년부터 적성·전공 등을 고려한 초기 진로지도도를 강화하고, 정부의 주요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한 핵심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대 학생 뿐만 아니라 타대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까지 진로취업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대학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하림, 2024년 동아리자랑대회 성료... 11개 우수 동아리에 포상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지난 17일, 본사 에그시어터에서 개최된 '2024년 동아리자랑대회'에서 한 해 동안 진행된 현장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뤄진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동아리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정호석 대표이사와 각 사업대표를 비롯한 동아리 리더, 동아리원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72개 동아리중 본선에 오른 11개 동아리의 현장중심 개선활동 우수사례(Best Practices)를 발표하고,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창의성 활성화를 위한 공유와 성과추진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현장 동아리자랑대회에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사례, 작업환경 개선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를 비롯한 위생관리시스템 개선, 생산성과 품질향상, 불량을 최소화, 용수절감 등에 관한 개선사례들이 발표되며 큰 호응과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올해 시상식에서 △해돋이동아리가 대상(상금 300만원)에



선정되는 영예에 차지했고 △최우수상(상금 250만원)은 오솔길/햇남동아리 △우수상(200만원) 2팀 장군동아리, 텔레파시동아리 △장려상(150만원) 3팀에게는 로또, 티오피, 동그라미 동아리 △참가상(각 100만원) 4개 동아리에게 총 1,8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은 재직 전북대 동문회, 모교 발전기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 재직 '전북대학교 동문회' 일동은 18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에 대학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모교발전기금 3,46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열린 이 날 전달식에는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 전북은행 방국봉 부행장, 오현권 부행장, 조성일 준법감시부장, 권순태 전북대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종양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치지사 010-8645-98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6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진행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18일 오후 2시, 중·고등학교장, 교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 강연을 개최 했다.

이번 강연은 '박주정의 지금을 바꾸는 시간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진행 되었으며 박주정 교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정 교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골든타임'을 언급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영곤 교육장은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며, 이번 강연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계농협, 조합원 대학생 장학금 1040만원 지원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은 지난 17일 조합원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조합원 대학생 장학금 수여식은 농협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조합원 대학생들의 학구열 고취 및 면학 분위기 조성과 어려운 농업농촌에 보탬이 되고자 총 1,04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은 "조합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농협을 이끌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농업인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소방서, 뇌질환 증상 발생시 119 신고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겨울철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뇌혈관 질환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증상 발생 시 신속한 119 신고를 당부했다.

뇌혈관질환(뇌졸중, 뇌출혈 등)은 갑작스러운 증상이 특징으로 신속한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환자의 생명과 후유증 최소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조 증상은 △갑자기 말을 알아듣기 어렵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시야 가장자리가 어둡게 보이는 증상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둔해지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남원소방서는 겨울철 응급상황에 대비해 구급대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119구급차 내 응급처치 장비를 점검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최승범 구조구급팀장은 "뇌혈관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며,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촉구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병원 이송 체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실천해 줄 것을 18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이나 경미한 외상,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 또는 임원을 위한 이송 요청 등은 비응급환자로 분류되어 구급차 호출 대상이 아니다.

소방서는 이러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며,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호출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의 폭행을 근절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효율적인 이송 체계를 확립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김장수 서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히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구급차는 반드시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